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신뢰가 곧 생명이다

신뢰! 한번 무너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쌓아가기는 힘들지만, 왜 무너지까? 욕심 때문이다.

성서에도 있잖은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욕심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가증스럽고 부질없는 욕망이, 비양심적 사고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상자를 알보기 때문이다.

이런 불량 사고는 어디서 나올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인의 타고난 기질적 요인도 중요하고, 이렇게 형성되어 버린 부정적 사고는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류들일수록 이중적 사

고가 지배적이다. 당연히 페르소나가 관을 친다. 이윤배반적 행위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모함도 잘 한다.

이러면서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나쁜 사고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엽기적 살인행위를 저지른 고유정처럼 오히려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때문에 이런 부류들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인 경향이 많다.

결국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기에 악이 항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웃기는 것은 이런 부류들이 신앙을 갖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약탈한 정치인들을 비

롯한 기업가, 관료,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등.

심지어는 직접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대부분 기복신앙이 많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보다는 부자 또는 승진, 각종 시험에 합격해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시기를 인지하거나 하겠는가. 때문에 주변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자아에만 도취되어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사자의 미소에도 진실이 없지만, 이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부정적 진면목을 알기 때문이다. 헛된 욕심이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임에도, 사실 인류의 급진적 발전은 불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 사용하거나 방심하면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만큼 양날의 칼이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춤을 추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이득과 부정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타서 소각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은 모두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일만은 없도록 하자. 항상 지금이 인생 최고의 절정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나 자신의 이해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社說

경찰 머그샷 도입 검토해야

경찰이 구속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니 이를 반긴다.

미국처럼 피의자들이 이름·생년월일 등이 적힌 판을 들고 키 측정자 앞에서 찍는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사건처벌특별법은 '잔인한 범행 수단'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여기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국내에서 머그샷은 피의자

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만 찍고, 일반에 공개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경우 경찰이 체포된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는데, 일부 주(州)는 교도소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진을 올린다.

경찰은 2010년부터 법률에 따라 구속된 강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따른 공개 결정이 제각각이고,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 사실상 소용이 없었다.

범죄 예방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자 "정수리 공개다" "머리카락 커튼만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

다. 경찰은 일단 여론을 수렴하되 머그샷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범죄 예방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추석 명절 고향에 안전을 선물해 드리자

우리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에는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이 한데 모여 화목을 다지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명절에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대

비를 해야겠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현재 신규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일반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였다.

화재가 발생 하였을때 초기 진압은 가장 중요하며 '소화기'는

소방차 한대와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등으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특히 심야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화재에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으므로 천장에 나사못으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번 추석명절에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향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안전을 선물해 드리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최성영 / 최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